



KBS1 <거리의만찬>
2019년 3월 1일 방영

소방관의 만찬, 오리 장작구이



박미선(MC) 여기 맛집이래요~ 많이 배고프죠?
이지혜(방송인) 엄청 배고프네요~ 오늘 많이 먹어야겠다~!
김지윤(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) 오늘 우리 수고했어요~



만찬장을 찾아온 네 명이 소방관



정은애
35년 차 소방관
강원도 원주 군부

신소희
3년 차 소방관
경기도 원주 군부



안녕하세요~ 반갑습니다~!



박미선 여기가 맛집이라고 소개해주셨는데 여기가 오리집이잖아요

박미선(MC) 여기가 맛집이라고 소개해주셨는데 여기가 오리집이잖아요. 저희가 추천을 부탁드렸더니 주임님이 여기를 추천해주셨더라고요~ 여기가 단골집인가 봐요?



김용배 오리고기가 몸에 좋지 않습니까

김용배(소방관) 제가 옆 동네에 10년간 살면서 자주 온 집입니다. 또 오리고기가 몸에 좋지 않습니까?



이지혜(방송인) 제가 요즘에 보양식 전문이거든요 ~ 오리고기가 수분이 많아서 열을 식혀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소방관님들한테 딱인 것 같아요!



박미선(MC) 사실 이렇게 몸보신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. 근데 아까 장비를 직접 착용해보니까 기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~ 평소에 보양식 드시러 오실 시간이 많이 있으세요?



김용배(소방관) 글썽요. 보양식보다 저희는 간단한 식품 쪽으로 많이 생각하죠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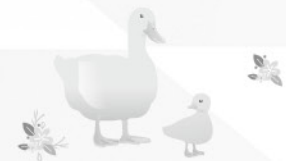
이지혜(방송인) 실제로 구내식당 제일 많이 가시죠? **김용배(소방관)** 제일 편하죠.



김지윤(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)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르니까~



정은애(소방관) 근무할 때 소방관들은 밥을 빨리 먹어요. 5분 10분 이내로 먹고~





시간 있을 때 채워 나라

김용배(소방관) 저희는 흔히 이렇게 말해요. “시간 있을 때 채워 나라”

박미선(MC) 아~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라~!



뜨거운 현장에서 뜨겁게 일하는 당신을 위한

뜨거운 현장에서 뜨겁게 일하는 당신을 위한



그래서 시간 있을 때 구워냈습니다!

그래서 시간 있을 때 구워냈습니다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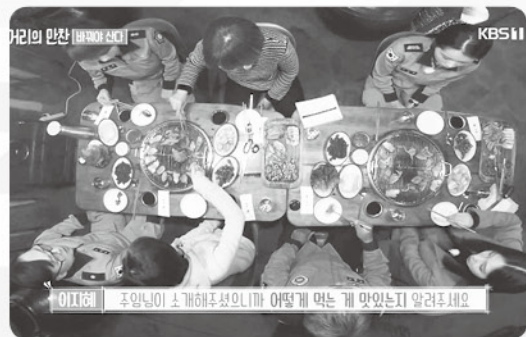
오늘의 만찬 오리 장작구이

오늘의 만찬, 오리 장작구이



지금 이 순간 끄지 말고 즐겨라!

지금 이 순간 끄지 말고 즐겨라!



이지혜(방송인) 주임님이 소개해주셨으니까 어떻게 먹는 게 맛있는지 알려주세요

이지혜(방송인) 김용배 주임님이 소개해주셨으니까 어떻게 먹는 게 맛있는지 알려주세요~





김용배(소방관) 백김치만 하나 올려서 드셔보고~ 나중에 취향에 따라 마늘이나 고추 올려서 싸서 드셔도 괜찮고요.



이지혜(방송인) 소희 씨도 오리고기 좋아해요? 아직 어려서 안 좋아할 때 아니에요?



신소희(소방관) 오리고기 맛있어요~!



위급할 땐 119
언제 어디서든 달려와 주는 사람들,
영웅이라 불리는 소방관들!
오리고기 먹고 몸보신하세요~